

사설

종교개혁 네트워크 출범

종교가 과연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 또한 너무 크다는 것도 분명하다. 종교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인류의 복된 삶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종교인만의 희망은 아니다. 그런 기원에 비추어 오늘의 우리 종교는 여러 가지 너무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런 모습을 개혁하여 참다운 종교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려는 기운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종교개혁 네트워크는 그러한 운동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일이 될 것이다.

우선은 이 네트워크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망라하여 연대적으로 종교의 참 모습을 찾자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제 각 종교는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원 종교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참종교의 이상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참종교를 지향하는 연대

적 모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일이 상생효과를 거두면서 가속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가 그동안 개혁에 힘써왔던 경험을 다른 종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 불교의 개혁에도 보다 참신한 비전을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GO적인 성격과 더불어 각 종교의 재가자 그룹이 그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제 승단 내지는 사제 그룹보다는 재가자 내지 신도층에서 개혁의 열풍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사제 그룹의 보수성을 탈피한 과감한 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양측의 대립구도로 가게 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그 출범의 시점부터 운동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실천의 방식을 결정하여 사제-신도의 대립구도가 아닌 지혜로운 대화와 협력의 구도를 잡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양자의 조화와 협력이야말로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자신을 바꾸는 일로부터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안티불교' 대책은 없나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존재와 우주가 각각 홀로 존재하는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말 자체도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편견에서 벗어나 무한한 연가 관계가 있음을 알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는 바로 지구 안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존재는 공기를 통한 공동연대에 있는 것처럼 정보라는 공기를 같이 들이마시고 내뿜는 공동연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모든 존재가 나와 한 몸이므로 내 안의 연결이라는 뜻이다.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끼여 있으면 호흡이 곤란하고 건강에 이상이 호오이. 정보라는 공기 속에 오염 물질이 될 수 있는 욕설, 비방, 거짓 정보들이 들어오면 순수한 뜻에서 만든 인터넷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그것은 곧 내 정보의 건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 관한 온갖 거짓 정보를 늘어놓던 '안티불교'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다른 안티불교 사이트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그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사찰을 카페나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말도 안되는 표제어를 내걸고 서명까지 받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인터넷이 각광을 받는 21세기는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여 서로가 풍성해지는 윈윈 활동이며, 서로의 주장을 내 속에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다양성의 시대, 퓨전의 시대이다.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악의적 활동의 세기가 아니다. 안티불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의 각성을 촉구하며, 당국에서도 건전한 정보가 유통되어 서로에게 유익한 인터넷이 되도록 방해가 되는 사이트는 사이버 수사대를 활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인터넷이 되도록 하는 감시와 지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 또한 불교를 보다 폭넓게 N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인터넷 포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지역별 봉축행사 확정

15일부터 복지시설 위문 등 프로그램 다채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 주요 도시와 조계종 교구별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올 봉축행사는 지역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최소 1-2개씩 실행할 계획이어서 부처님 오신날이 자비 실천의 날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봉축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를 집행하는 주요 지역과 조계종 교구별 봉축행사도 지난 해 12개 지역에 서울해 1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조계종 봉축기획단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은 "올해의 봉축 행사를 통해 동(동)문회의 향상, 자비의 사회적 실천 확대, 연동축제를 전통 문화축제로 정착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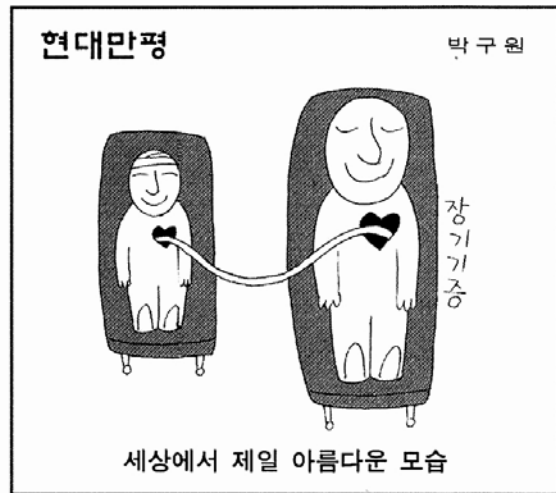
올해 봉축 기간은 15일부터 5월 1일까지지만, 각 지역 봉축위원회는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 기간에 들어간다. 주요 지역 봉축탑 점등일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 17일 오후 7시, 시청앞 광장 △부산 18일 부산역 광장 △대구 14일 국제보상공원 △광주 17일 전남도청 앞 △마산·창원 17일 육속광장.

지역봉축위원회와 별도로 조계종 4교구 월정사, 5교구 범주사 등 다양한 봉축행사를 펼친다. 월정사는 진부시내 일원에서 24일 제등행진, 불꽃놀이, 차량에 연등 달아주기를 한다. 또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월정사에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진행한다. 범주사는 청주교도소를 비롯 6개 보호시설 위문(29일), 제등행진(30일, 보은시내), 민족화합 세계평화기원 점등식(5월 1일, 범주사)을 갖는다.

마곡사도 15일 공주시내 점막사거리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의 행사를 펼친다.

수덕사는 홍성교도소, 해미 공군부대 등을 위문한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축제, 등반대회, 불교영화 상영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지역 봉축행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군승단 대책위 구성

위원장 정선진 법사...집행부 기능 대행

조계종 포교원은 28일 군승단 한시적 해체에 대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국방부 군종실 정선진 선임법사를 임명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장의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10명 이내의 대책위원을 임명해 기존 군승단 집행부의 기능을 대행키로 했다. 그동안 포교원은 2월 22일과 3월 12일 두 차례의 각 군별 최고 선임법사와의 종단 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포교 사업의 지속성과 군승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조계종 호법부는 26일 군승단 파행운영 및 <선도상담백>

중요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광환, 김규대, 이승호 법사를 4월 3일 소환키로 했다.

김두식 기자

사미(니) 242명 탄생

조계종은 3월 23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20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을 갖고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 123명, 사미니 119명 등 총 242명에게 사미(니)계를 수여했다.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은 회향사를 통해 "수행과 전법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원우 기자

011 n-top 접속

봉축메시지 띄우세요

현대불교, 한달간 서비스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핸드폰으로 축하메시지를 띄워보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사는 011 n-top 불교정보를 통해 4월 둘째주부터 5월 둘째주까지 5주간 봉축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011 n-top에 접속, 7.여성/문화 -> 9.종교 -> 1.불교정보를 선택하면 1.축하메시지 보내기 코너가 마련돼 있다. 축하메시지 보내기 메뉴를 선택하고 상대방 번호를 입력한 후 메시지 샘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한편 부다피아(http://card.buddhapia.com)는 봉축 웹카드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

김지연 기자

조계종 총무국장 덕신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3월 27일 총무원 총무국장에 덕신스님을 임명하는 등 총무원 국장에 대한 부분 인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범승스님을 호법국장, 호법국장 선공스님을 호법부 조사국장으로, 조사국장 태진스님을 상임감찰로 전보 발령했다.

정성운 기자



◇디지털 합성화면으로 본 봉축열차의 내부 모습.

봉축열차 10일부터 운행

5호선 6월까지...음악회·선무도 공연

부처님오신날 봉축테마열차가 계획보다 열을 높인 4월 10일부터 운행된다. 대신 운행 기간은 6월 30일까지 한달 연장해서 운행한다.

봉축테마열차는 도시철도공사 소속 5호선(강화-상일동) 4량의 열차에 꾸며지며, 운행 기간 중 평일에는 4회, 토요일은 6회 등 모두 378회 운행한다.

봉축테마열차는 9일 고덕차량기지에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대표와 고건 서울시장, 홍준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운행 기간 중에는 캐릭터 인형 나뉘주기, 전통음악 연주회, 네발전통춤 공연, 선무도 시범, 축적 사진 촬영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정성운 기자

<봉축열차 운행시간표>

| 요일  | 명 일               | 공 휴 일             |
|-----|-------------------|-------------------|
| 역명  | 상일-강화             | 상일동-강화            |
| 방향  | 12.24.15.24       | 12.31.15.31       |
| 상행  | 11.55.14.55       | 10.39.13.39.16.39 |
| 하행  | 11.40.14.40       | 13.15.16.15       |
| 왕십리 | 11.27.14.27       | 13.28.16.28       |
| 상일동 | 11.01.14.01       | 13.54.16.54       |
| 방향  | 12.31.15.31       | 11.08.14.08.17.08 |
| 상행  | 11.15.14.15.17.15 | 11.43.14.43.17.43 |
| 하행  | 11.59.14.59       | 11.59.14.59.17.59 |
| 왕십리 | 10.11.13.11.16.11 | 12.12.15.12.18.12 |
| 상일동 | 09.45.12.45.15.45 | 12.38.15.38.18.38 |

직능 종회의원 전문성 강화

조계종선관위 규칙 제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 범주사 주지)는 3월 28-29일 범주사에서 연수회를 열고 직능대표 종회의원(윤원, 선원, 강원, 교육 등 10개 분야 20명)의 전문성을 확보할 장치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곧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정될 시행규칙에는 종회의원 출마 자격(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에 최소한 2-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번 연수에서 총무원장·본사주지·종회의원 을 뽑는 선거 과정의 폐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가칭 '조정위원회' 구성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종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발표문 요약본) 정성운 기자

조계종 신도등록 재추진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대 상운)은 3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교구본사에 이관한 후 중단된 중단된 신도등록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해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신도교부금도 재납부토록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해 신도등록업무가 교구본사로 이관된 이후 담보상태에 놓였었다. 김원우 기자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천도재 및 勝景地區 결계도량

귀의삼보하옵고,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6여년이 흘렀습니다. 인연이 있는 공덕주의 발원으로 백화점 붕괴 이전 이후의 모든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勝景地區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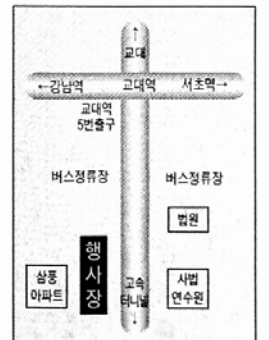
일 시 : 불기 2545(2001)년 4월 5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구 삼풍백화점 터(행정법원 정문앞)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지리산 화엄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

영가법문 : 청화스님(성륜사 조실)  
추 모 사 : 총무원장 정대스님  
영 산 재 : 인목스님

증명 : 천운·원명·중국  
봉행위원장 :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  
위원 : 지홍 정락 법장 현해 지명 진허 법장 법성 성덕 법의 성타 세민 통광 성오 상수 법조 도영 다정 현보 보선 중원 법현 부림 현고 성월 해자 양산 중지 성국 계성 상운

집행위원장 : 화엄사 주지 종걸  
위원 : 지하 청화 명진 원행 종림 현각 지현 성관 자승 세영 마근 정념 도완 도공 원담 장국 진각 지운 선광 법등 법보 유광 혜정 장적 무이 종상 장주 수완 도각 영담 정인 석호 정각 근일 설송 지광 성오 화법 진만 종삼 영조 범종 몽산 월우 중하 탄우 대원 진원 태공 인묵 동욱 지광 현응 지욱 향적 학담 법안 해창 정우 영배 여연 정휴 광조 장운 원우 지홍 원명 수현 일법 본각 해주 법성 도문 운달 지형 계호 경륜

행사장 안내



교통편 안내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 6번출구  
버스 : 36.41.78.78-2.212-2경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종걸